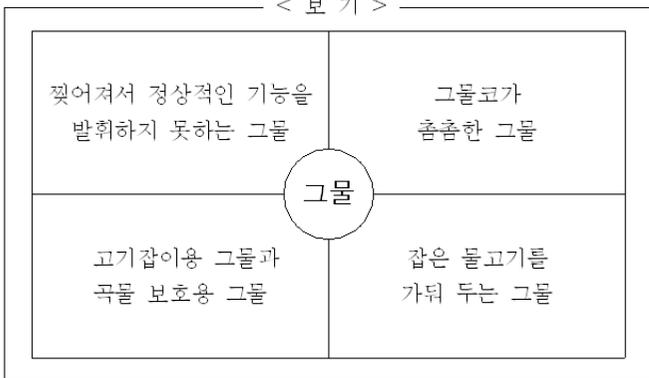




6. <보기>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학습 자세'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연상해 보았다. <보기>에서 이끌어 내기 어려운 것은?



- ① 학습한 후에 그 내용을 잘 기억해야 함.
- ② 성적을 올리려면 학습에 흥미를 붙여야 함.
- ③ 목적에 맞게 학습 방법을 달리 적용해야 함.
- ④ 좋지 않은 학습 방법을 찾아 이를 개선해야 함.
- ⑤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말고 꼼꼼하게 정리해야 함.

7. 투병 중인 학우를 돕기 위해 모금 운동을 하려고 한다. 그 홍보물에 들어갈 문구 중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것은?

< 보 기 >

- 행사 참여를 우회적으로 권유한다.
- 비유적 표현, 감각적 표현을 사용한다.

- ① 사막과 같이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모은 성의는 우정의 오아시스가 될 것입니다.
- ② 지금도 시시각각 친구의 생명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성금을 모아 친구를 살려냅시다.
- ③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체유를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흔쾌히 참여합시다.
- ④ 우리의 정성을 모아 꺼져가는 불씨를 일으킵시다. 아픈 친구를 사월의 햇살처럼 향기로운 미소로 응원합시다.
- ⑤ 투병 중인 친구를 위해 이제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고통스런 친구의 얼굴에서 사라져 버린 웃음을 되찾아 줍시다.

8. '공학 교육의 경쟁력 확보'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글감을 수집했다. 글감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설문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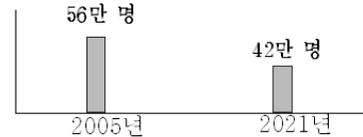
- 현재 공학 교육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현재 공학 교육과정은 대학별로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교수	43.8%		교수	52.2%	
공대생	30.8%		공대생	61.2%	
산업체	30.6%		산업체	61.8%	

(나) [A] 공대 졸업자 수 비교(2005년)

한국 : 6만 9천 명 / 미국 : 7만 3천 명  
 (\* 미국 인구는 우리의 6배)

[B] 고교 졸업자 수 현황과 예측



(다) "4년제 공대를 나오고 학점도 좋으나 산업체의 실무 모르는 졸업자가 많습니다. 대학은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 ○○ 지역 상공회의소장 인터뷰

(라) "현재의 백화점식 학과 개설 방식은 내실이 없어 공학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산업 여건에 따라 공대 간에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학과나 교육과정을 특화해야 합니다." - △△공대 학장 인터뷰

(마) 정부의 공대 혁신 전략(2006년)

- 특성화된 공대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할.
- 산업체는 대학 시설을 이용하고, 대학은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를 기르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 ① (가) + (라) : 지나치게 많은 학과 개설과 획일화된 교육과정이 공학 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 ② (나)[A] + (다) : 미국에 비해 공대 출신 학생의 비율은 높아도 정작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는 부족한 실태를 지적한다.
- ③ (나)[B] + (마) : 고교생의 감소 추세에 따라 심화될 수 있는 공대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공대에 더 많은 연구비를 지원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④ (다) + (라) : 지역 산업의 여건에 따라 공대에 특색 있는 학과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내실 있는 인재를 길러야 함을 강조한다.
- ⑤ (다) + (마) :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산업체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능력 사이의 괴리를 없애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9. 다음은 '기부 문화'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이다. 수정·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조사의 목적**  
· 지역별·계층별 기부 현황 조사 및 기부 문화의 발전 방향 모색

**<글쓰기 계획>**

**■ 조사 내용 및 방법**  
· 기부 문화의 성격  
- 도서관의 논문 자료 검색  
· 기부 문화의 실태  
- 지역별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문을 만든 후 조사  
· 외국의 사례  
- 신문 방송 자료 검색 후 수집  
· 전문가 의견  
- 탐방

**■ 보고서의 제목과 차례**  
· 제목 : 기부 문화의 의미  
· 차례  
1. 조사의 동기와 목적  
2. 조사 방법 : 문헌 조사, 설문 조사, 인터뷰 조사  
3. 외국의 사례  
4. 전문가 의견  
5. 설문 결과의 분석  
6. 요약, 정리

**<수정·보완 방안>**

→ 생활수준에 따른 기부 문화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소득 계층별 항목도 추가한다. .... ①

→ 바람직한 기부 문화의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기부 문화가 활성화된 국가를 조사 대상에 넣는다. .... ②

→ 전문가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탐방이 끝난 후 대담 형식으로 정리한다. .... ③

→ 조사 목적과 보고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기부 문화의 현황과 향후 전망'으로 고친다. .... ④

→ 외국의 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새로운 조사 방법을 모색한다. .... ⑤

10. <보기>는 '수자원 보호'에 대한 글의 서론이다. 이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우리 나라에는 ①물 퍼붓듯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이 흔했지만,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물을 ②함부로 남용하여 수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 유엔이 수자원 보고서에서 우리 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③분류된 만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수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수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인식은 하면서도 실천은 잘 하지 않는다. ④공익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정부의 입장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민들의 입장이 상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수원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⑤깊이 살핀 후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한다.

- ① ① :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이므로 '물 쓰듯 한다'로 수정한다.
- ② ② :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이므로 '함부로'를 삭제한다.
- ③ ③ :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으므로 '분류된'으로 고친다.
- ④ ④ : 전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앞문장과 위치를 바꾼다.
- ⑤ ⑤ : 맞춤법에 맞지 않으므로 '깊이'로 수정한다.

11. 화자와 주체, 화자와 청자의 상하 관계에 따른 높임 표현의 사례를 <보기>와 같이 분석하였다. 바르게 분석한 것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은? [1점]

< 보 기 >

우리말에서는 문장의 주어(주체)가 화자인 '나'보다 상위자이면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고, 청자가 화자인 '나'보다 상위자이면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습니다' 등을 사용한다.

문장 표현의 사례	⇒	화자와 주체의 관계	화자와 청자의 관계	
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셨습니다.	⇒	화자 < 주체	화자 < 청자	...①
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셨다.	⇒	화자 > 주체	화자 ≥ 청자	...②
동생이 운동을 했습니다.	⇒	화자 > 주체	화자 < 청자	...③
동생이 운동을 했다.	⇒	화자 < 주체	화자 ≥ 청자	...④

■ '<', '>', '≥': 화자와 주체, 화자와 청자의 상하 관계 표시.  
(예) 스승 > 제자

- ① ③, ④
- ② ①, ②
- ③ ③, ④
- ④ ③, ④
- ⑤ ③, ④

12. <보기1>의 단어들을 <보기2>의 밑줄 친 '말'과 바꿔 쓰려고 할 때, 어느 것라도 바꿔 쓰기 어려운 것은?

< 보 기 1 >

○ '말'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조사한 결과

- 대화(對話 : 마주 대하여 말함.) .... ①
- 진술(陳述 : 자세히 벌여 말함.) .... ②
- 자백(自白 :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음.) .... ③
- 개진(開陳 : 주장을 밝히기 위해 의견을 말함.) .... ④
- 항변(抗辯 : 어떤 일에 대하여 자신을 변호함.) .... ⑤

< 보 기 2 >

- 나는 사건의 자초지종을 아는 대로 말했다.
- 그는 자신의 죄를 수사관 앞에서 말했다.
- 나는 회의 시간에 두발 자율화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 그는 자신에 대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 ① ①
- ② ②
- ③ ③
- ④ ④
- ⑤ ⑤

【13-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제 손으로 만들지 않아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흥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길로 이끌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솥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냄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투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나)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詩人)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놓고 마음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靈魂)과 육체(肉體)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 김수영, 「눈」 -

(다)

세속의 나그네는 이르지 않는 곳	俗客不到處
올라보니 뜻도 생각도 절로 맑아	登臨意思清
산 모습도 이 가을엔 더더욱 좋고	山形秋更好
강의 색도 이 밤에 더욱 흰뚜러	江色夜猶明
백조는 높이 날아 사라져 가고	白鳥高飛盡
외로운 돛단배 가버이 가네	孤帆獨去輕
부끄럽구려, 달팽이 더듬이 위에서	自慙蝸角上
반평생 헛이름만 찾고 있구나	半世覓功名

- 김부식, 「감로사차혜원운(甘露寺次惠遠韻)」 -

\* 시우쇠 : 무쇠를 불에 달구어 단단하게 만든 쇠붙이.  
 \* 모루 : 대장간에서 불에 달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쇠덩이.

13.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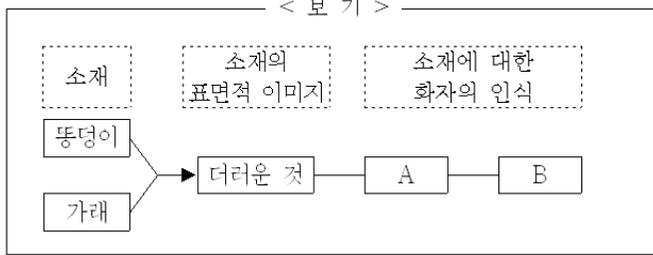
- ① (가)와 (나)에는 상황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자세가 나타나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이 나타나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④ (가) ~ (다)에는 대상의 부재나 결핍으로 인한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 ⑤ (가) ~ (다)에는 자신이 가려는 길에 타인도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14. (가)의 제목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자 할 때, 다음 내용 중에서 (가)의 주제 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끼리 묶은 것은? [3점]

<대장간>	<유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드는 공간 ..... ㉠</li> <li>◦ 사물을 단련하여 가치 있는 물건으로 만드는 생산적 공간 .....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다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하고 싶은 갈망 ..... a</li> <li>◦ 대상을 현혹하여 지배하고 싶은 욕망 ..... b</li> <li>◦ 자기 스스로의 매력에 도취되어 살고 싶은 희망 ..... c</li> </ul>

- ① ㉠ - a
- ② ㉡ - c
- ③ ㉠ - a
- ④ ㉡ - b
- ⑤ ㉡ - c

15 시상의 흐름을 바탕으로 [동덩이]와 [가래]의 시적 의미를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A와 B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 A        | B              |
| ① 망각의 대상 | 화자의 발전한 모습     |
| ② 망각의 대상 | 화자의 감추고 싶은 모습  |
| ③ 배출의 대상 | 타인에 대한 화자의 동정  |
| ④ 배출의 대상 | 자신에 대한 화자의 연민  |
| ⑤ 배출의 대상 | 화자 자신의 부정적인 요소 |

16 시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의 의미를 해석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눈[雪]'의 상징  순수, 결백, 정화 시련, 냉혹함 .....	'눈[眼]'의 의미  ■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 ↓ ■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
---	--

- ① 탈속의 세계를 지향하는 정화된 시선을 뜻한다.
- ② 옹고그름을 가려낼 줄 아는 순수한 생명력을 뜻한다.
- ③ 결백함과 불순함이 혼재된 화자의 내면 세계를 뜻한다.
- ④ 냉혹한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화자의 나약함을 뜻한다.
- ⑤ 닥쳐올 시련을 인식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태도를 뜻한다.

17. (다)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동일한 소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외부 상황 묘사에서 화자의 내면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 ⑤ 색채를 대비하여 계절의 변화 과정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대부분의 재화는 시장 원리에 따라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공급자가 그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등대,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나 깨끗한 공기, 바다 속의 물고기와 같은 공유자원은 재화를 이용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경우를 시장실패라 하는데,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법은 재화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공재와 공유자원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를 말한다. 배제성이란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을 받는 속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해안가에 세운 등대가 주는 혜택을 특정한 개인이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없고, 한 사람이 그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편익이 줄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등대는 공공재가 된다. 공공재가 배제성이 없다는 것은 재화를 생산하더라도 그것을 소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므로 누구도 공공재를 공급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따져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시장실패를 예방할 수 있다.

공유자원은 공공재와 같이 배제성이 없어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지만 경합성이 있는 재화이다. 이에 따라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다고 하자. 소 주인들은 공짜로 풀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소를 돌고 와서 먹이려고 할 것이다. 자기 소를 한 마리 더 들여와 목초지가 점점 훼손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은 목초지를 이용하는 모든 소 주인들이 함께 나누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초지의 풀은 제한되어 있어 어느 수준 이상의 소가 들어오면 목초지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공공재에 의한 시장실패는 정부가 공공재의 공급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쉽게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자원에 의한 시장실패는 위의 예와 같이 개인들이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려고 경합하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재화의 경합성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예방책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예방책으로는 정부가 공유자원의 사용을 직접 통제하거나 공유자원에 사유 재산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의 직접 통제는 정부가 ㉡ 특정 장비 사용의 제한, 사용 시간이나 장소의 할당, 이용 단위나 비용의 설정 등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이다. 사유 재산권 부여는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하려는 사람들의 성향을 이용하여 공유자원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공유자원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이 두 방법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통제 방식이나 절차, 사유 재산권 배분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 능력과 개인의 사유재산 관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성패의 관건이 된다.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의한 시장실패는 자원의 왜곡된 배분을 가져와 사회 전체의 효율을 감소시킨다. 또한 재화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화를 공급하여 얻는 편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장실패가 초래하는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구성원의 경제적 후생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경제 정책이 되어야 한다.

1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시장실패는 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 ② 공공재와 달리 공유자원은 경합성이 있는 재화를 의미한다.
- ③ 공유자원의 비극은 재화의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 ④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시장실패로 인한 부작용을 심화시킨다.
- ⑤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다.

1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국제 사회는 온실 효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규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 수단의 일환으로 각국에 일정량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부여하고, 국가 간 또는 기업이나 기관 간에 그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실행하고 있다.

- ①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로 보고 있다.
- ②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정착되면 공유자원은 점점 줄어들 것.
- ③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사유 재산처럼 거래하게 함으로써 공유자원이 황폐화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의도.
- ④ 시장 원리에 어긋나게 정부의 통제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거래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제도는 아니.
- ⑤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구입할 수 없는 기업에는 정부가 배출권을 무상으로 배분하여 공유자원의 균등한 이용을 유도하려는 의도.

20 밑줄 친 어휘의 문맥적 의미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노사 협상을 통해 파업단은 막아야 합니다.
- ② 추위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 ③ 어둠을 틈타서 공격해 올 적을 막아야 한다.
- ④ 어음을 막지 못해 그 기업은 결국 도산했다.
- ⑤ 땅주인이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다.

21 ㉠에서 언급된 해결 방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점]

- ①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수렵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렵 허가 지역을 운영한다.
- ②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우범 지역마다 CCTV를 설치하여 범죄 발생을 예방한다.
- ③ 국립공원의 환경과피를 막기 위해 이용 예약제를 실시하고, 일부 등산로에 대해 휴식년제를 도입한다.
- ④ 도심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한다.
- ⑤ 어장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다 밑바닥을 훑으며 고기를 잡는 저인망 그물 사용을 금지한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하루는 나귀를 탄 소년 하나가 하인 수십 명을 거느리고 병영 문 밖에 와 뵈기를 청한다 하기에, 감사가 들어오라 하니, 그 소년이 당상에 올라와 인사를 했다. 감사가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그토록 기다리던 길동인지라, 기쁘고도 놀라워 주위 사 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손을 잡고 흐느껴 울면서 말했다.

“길동아, 내가 한번 집을 떠난 뒤 생사를 알지 못하여 아버지께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얻으셨다. 너는 갈수록 불효를 끼칠 뿐 아니라 나라에 큰 근심이 되게 하니, 무슨 마음으로 [A] 불충불효를 하며, 또한 도적이 되어 세상에 비할 데 없는 죄를 짓느냐? 이 때문에 성상께서 진노하시어 나로 하여금 너를 잡아들이도록 하셨다. 이는 피치 못할 죄이니 너는 일찍 서울로 올라가 왕명에 순종해라.”

하고 말을 마치며 눈물을 비오듯 흘렸다. 길동은 머리를 숙이고 말했다.

“제가 여기에 이른 것은 부형을 위태로움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것이니, 어찌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대감께서 당초에 친한 길동을 위하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게 하셨던들 어찌 여기까지 이르렀겠습니까? 지나간 일은 말해 봐야 쓸데없거니와, 이제 소제(小弟)를 묶어 서울로 올려 보내십시오.”

하고는 다시 말이 없었다. 감사는 이 말을 듣고 한편 슬퍼하면서 한편 공문을 쓰고는 길동의 목에 칼을 씌우고 발에 차꼬를 채워 죄인 호송용 수레에 태웠다. 건장한 장교 십여 명을 뽑아 호송하게 한 뒤, 주야로 갑질의 길을 가도록 시켜 올려 보냈다. ㉠각 읍 백성들은 길동의 재주를 들었는지라, 잡아 온다는 소문을 듣고 길에 모여 구경을 하였다.

이때, ㉡팔도에서 다 길동을 잡아 올리니, 조정과 서울 사 람들이 어찌된 영문인지를 아무도 몰랐다. 임금에 놀라서 온 조정의 신하들을 모으고, 몸소 죄인을 다스리는데, 여덟 명의 길동을 잡아 올리니 그들이 서로 다투면서 말하기를,

“내가 진짜 길동이지 나는 아니다.” 하며 서로 싸우니, 어느 것이 진짜 길동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중략)

하루는 길동이 공중으로부터 내려와 걸하고 말했다. “제가 지금은 진짜 길동이오니, 형님께서는 아무 염려 마시고 결박하여 서울로 보내십시오.”

감사가 이 말을 듣고는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이 철없는 아이야, 너도 나와 동기인데 부형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니, 어찌 애담지 않으랴. 네가 이제 진짜 몸이 와서 나를 보고 잡혀가기를 자원하니 도리어 기특한 아이로다.”

하고, 급히 길동의 왼쪽 다리를 보니, 과연 혈점이 있었다. 즉시 ㉢팔다리를 단단히 묶어 죄인 호송용 수레에 태운 뒤, 건장한 장교 수십 명을 뽑아 철통같이 싸고 풍우같이 돌아가도, 길동의 안색은 조금도 변치 않았다. 여러 날만에 서울에 다다랐으나, 대궐 문에 이르러 길동이 한 번 몸을 움직이자, 쇠사슬이 끊어지고 수레가 깨어져, 마치 매미가 허물 벗듯 공중으로 올라가며, 나는 듯이 운무에 묻혀 가 버렸다. 장교와 모든 군사가 어이없어 다만 공중만 바라보며 넋을 잃을 따름이었다. 어쩔 수 없이 이 사실을 보고 하니, 임금이 듣고,

“천고에 이런 일이 어디 있으랴?”

하며, 크게 근심을 했다.

이에 여러 신하 중 한 사람이 아뢰기를,

“길동의 소원이 병조 판서를 한 번 지내면 조선을 떠나겠다는 것이라 하오니, 한 번 제 소원을 풀면 제 스스로 은혜에 감사 하오리니, 그때를 타 잡는 것이 좋을까 하옵니다.”

라고 했다. ㉔임금이 옳다 여겨 즉시 길동에게 병조 판서를 제 수하고 사대문에 글을 써 붙였다.

그때 길동이 이 말을 듣고 즉시 고관의 복장인 사모관대에 서대를 띠고 덩그런 수레에 의젓하게 높이 앉아 큰 길로 버섯이 들어오면서 말하기를,

“이제 흥판서 사은(謝恩)하러 온다.”

라고 했다. 병조의 하급 관리들이 맞아해 궐내에 들어간 뒤, 여러 관원들이 의논하기를,

“길동이 오늘 사은하고 나올 것이니 도끼와 칼을 쓰는 군사를 대복시켰다가 나오거든 일시에 쳐 죽이도록 하자.”

하고 약속을 하였다. ㉕길동이 궐내에 들어가 엄숙히 걸하고 아뢰기를,

“소신이 죄악이 지중하온데, 도리어 은혜를 입사와 평생의 한을 풀고 돌아가면서 전하와 영원히 작별하오니, 부디 만수무강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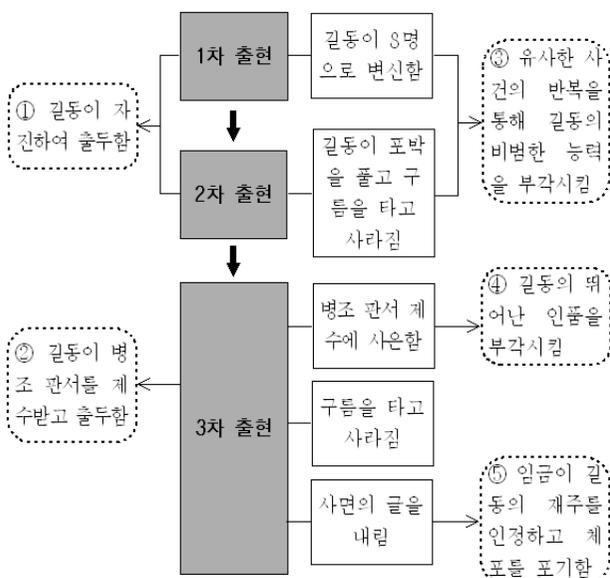
하고, 말을 마치며 몸을 공중에 솟구쳐 구름에 싸여 가니, 그 가는 곳을 알 수가 없었다. 임금이 보고 도리어 감탄을 하기를,

“길동의 신기한 재주는 고금에 드문 일이다. 내가 지금 조선을 떠나노라 하였으니, 다시는 께 끼칠 일이 없을 것이요, 비록 수상하기는 하나 대장부다운 통쾌한 마음을 가졌으니 염려 없을 것이로다.”

하고, 팔도에 사면(赦免)의 글을 내려 길동 잡는 일을 그만두었다.

- 허균, 「홍길동전」 -

22 위 글의 내용을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조화하였을 때, 내용에 대한 이해나 해석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3 [A]와 [B]에 나타난 두 인물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감사는 감정에 호소해 가며 길동을 나무라고 있다.
- ② [A]의 감사는 임금의 명령을 거론하며 길동을 설득하고 있다.
- ③ [B]에는 길동이 생각하는 갈등의 이유가 드러나 있다.
- ④ [B]에서 길동은 자신의 파오에 대한 회한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B]에서 길동은 지난 일은 불문에 부치자며 스스로 구급되자 한다.

24 <보기>의 사실을 전제로 하여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홍길동은 신출귀몰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 ㉠ ㉠ : 소문이 방방곡곡에 자자하게 퍼졌을 만큼 길동이 신출귀몰한 인물임을 보여 준다.
- ㉡ ㉡ : 백성들은 물론 조정에서조차 길동의 신출귀몰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처 간파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준다.
- ㉢ ㉢ : 경계가 철통같다는 것은 길동의 신출귀몰한 재주를 조정에서도 익히 알고 있음을 말해 준다.
- ㉣ ㉣ : 조정에서 계략을 꾸며 가면서 길동을 잡으려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을 만큼 길동이 신출귀몰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 ㉤ ㉤ : 길동의 신출귀몰한 능력도 결국 위기에 봉착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보여 준다.

25 <보기>의 조건을 모두 반영하여 내용을 구성해 보라는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보 기 >

- 위 글의 뒤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할 것
- 주인공의 행적이 드러나도록 할 것
- 주인공의 신분이나 처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킬 것

- ① 길동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모아 놓고 병법을 연마하면 큰 벼슬에 오를 수 있다며 선동하는 장면을 서술한다.
- ② 길동이 이복 형제인 인형을 만나 자신이 풀었던 지난날의 한(恨)을 풀 수 있게 해달라며 부탁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 ③ 조선 팔도가 다시 길동의 도적 행위로 인해 혼란에 빠져 들자 임금이 길동 일당을 토벌하기 위해 관군을 파견하는 장면을 제시한다.
- ④ 길동이 신분은 미천해도 그 재주가 뛰어나다는 것에 위기감을 느낀 관리들이 길동을 유인하기 위해 그의 형을 설득하는 장면을 제시한다.
- ⑤ 사면된 길동은 아버지를 찾아 서자(庶子)로서의 한(恨)을 풀었다며 감사한 후, 임금과의 약속대로 새 삶을 다짐하며 조선을 떠난다는 내용을 소개한다.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현금지급기, 휴대 전화, 게임기 등을 보면 손가락으로 스크린 위에 나타나는 메뉴를 누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많다. 이들 기기들은 손가락으로 스크린 위의 특정 부위를 누르기만 하면 그에 해당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별도의 입력 장치를 두지 않고 스크린 위를 눌러 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터치스크린이라고 한다. 터치스크린의 핵심 기술은 스크린의 특정 부위에 손가락이나 펜 등을 댄을 때, 이 사실을 감지하게 하는 데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식으로 접촉식 방식과 저항막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접촉식 방식은 사람 몸이 전류를 흡수할 수 있는 특징을 이용한다. 유리의 양면에 얇고 투명한 특수 전도성 금속을 코팅하고 그 부위에 일정량의 전류가 흐르도록 한다. 그래서 사용자가 코팅된 유리 표면을 접촉하면 전류의 일부가 사용자의 체내에 흡수된다. 그러면 접촉된 부분의 전류량이 변화가 생기고, 이를 통해 터치스크린은 접촉 위치를 분석해 필요한 명령을 수행한다. 접촉식 방식의 터치스크린은 정전기와 같은 미세한 전류량의 변화도 감지하기 때문에 살짝만 접촉해도 반응을 하는데, 장갑을 끼고 접촉하면 사람의 몸이 전류를 흡수할 수 없어 반응하지 않는다.

저항막 방식의 터치스크린은 유리판 위에 저항막을 입히고 그 위에 덮어씌운 특수 필름 안쪽에도 저항막을 입힌 형태이다. 유리판과 특수 필름 사이에는 절연봉이 있어 유리판과 특수 필름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저항막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어 손가락이나 펜으로 스크린에 접촉하면 특수 필름의 저항막이 유리판 위의 저항막에 닿으면서 전압이 변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접촉 위치를 감지한다. 저항막 방식은 손에 장갑을 낀 상태로도 작동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정전기와 같은 외적 요인의 영향을 접촉식보다 덜 받아 불필요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공장자동화 장비나 의료 장비 등에 많이 쓰인다.

기존의 터치스크린은 동시에 여러 정보를 입력하기가 어려웠고 점 이외의 정보를 인식하지 못했으나, 최근에 출시된 터치스크린은 다중 입력이 가능하고 선이나 면 등도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용자가 구현하고자 하는 선과 면을 정교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입력 속도 면에서 키보드나 마우스의 성능을 넘어서지 못하고, 가격이 비싸 소비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터치스크린이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터치스크린의 앞날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여러 단점이 보완될 수 있다는 사실 외에도 차세대 영상 장치인 '전자종이'에 터치스크린이 기본적으로 내장될 것이라는 사실을 들고 있다. 구부리거나 돌돌 말아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전자종이에 터치스크린 기술이 적용되면, 전자종이는 보다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활용 가능성은 터치스크린이 현재보다 미래에서 더욱 각광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26. 위 글의 전개 과정을 정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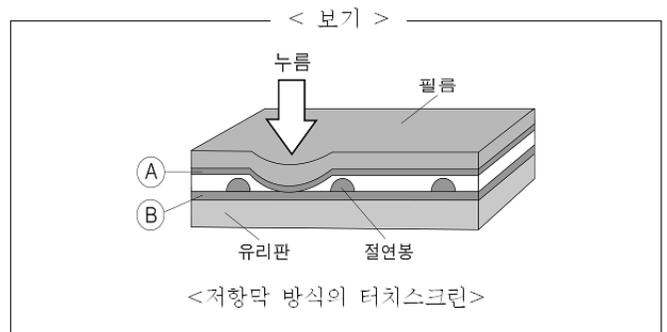
- ① 현황 소개 → 한계 언급 → 원인 분석 → 해결 방안 제시
- ② 화제 제시 → 현황 소개 → 원리 및 특성 설명 → 향후 전망
- ③ 화제 제시 → 원리 및 특성 설명 → 한계 언급 → 향후 전망

- ④ 화제 제시 → 장·단점 설명 → 해결 방안 제시 → 향후 전망
- ⑤ 현황 소개 → 원리 및 특성 설명 → 한계 언급 → 해결 방안 제시

2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터치스크린 기술의 핵심은 누르는 강도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 있다.
- ② 접촉식 방식은 사람 몸이 전류를 흡수할 수 있는 특징을 이용한다.
- ③ 터치스크린은 전자종이의 사용자 환경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
- ④ 접촉식 방식의 터치스크린은 유리 양면에 전도성 금속이 코팅되어 있다.
- ⑤ 저항막 방식은 접촉식 방식에 비해 정전기 등의 외적 요인의 영향을 덜 받는다.

28. 위 글을 읽고 <보기>에서 '저항막'을 ㉠, ㉡와 같이 설치한 이유를 파악해 보았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로도 정보의 입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일 거야.
- ② 어떻게 접촉을 하든지 간에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일 거야.
- ③ 휴대가 간편해지도록 터치스크린의 크기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일 거야.
- ④ 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 거야.
- ⑤ 절연봉을 이용해 화면에 선이 정교하게 그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 거야.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모든 동물에게 공통되는 생명의 특징은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숨을 쉰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숨 쉬기는 동물의 각 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활동이다. 숨을 쉬지 못하면 산소가 세포로 전달되지 못해 세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생명체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이처럼 생명 활동에 중요한 호흡은 과학적 개념으로 볼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나)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과 결합되어 신체의 각 조직세포로 운반된 후 분리된다.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각 조직세포로 실어 나르는 수송차이다. 헤모글로빈은 철을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로 붉은색을 띤다. 헤모글로빈 1분자는 최대로 산소 4분자까지 결합한다. 이처럼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하는 것을 포화반응이라고 하며, 그 결합물을 산소헤모글로빈이라고 한다. 반면에 각 조직세포로 이동한 산소헤모글로빈에서 산소가 분리되는 것을 해리반응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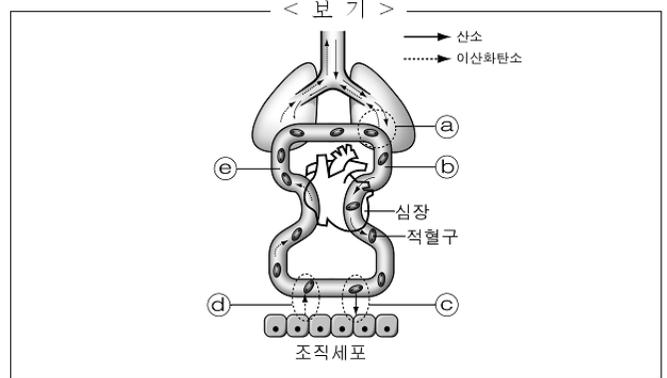
(다) ①포화반응은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환경에서 잘 일어난다. 또한 포화반응은 혈액의 pH(수소이온농도지수)가 높을수록 잘 일어난다. 혈액의 pH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질수록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치보다 증가하게 되면 포화반응이 일어나는 비율도 줄어들게 된다. 간혹 숨을 헐떡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는 체내의 이산화탄소를 체외로 배출해 포화반응 비율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온도가 포화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온도가 낮을수록 포화반응이 잘 일어난다. 해리반응은 포화반응과 반대로,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으며 pH가 낮고 온도가 높을 때 잘 일어난다.

(라) 산소가 세포로 전달되면 그 안에서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이용하여 포도당과 같은 영양분을 분해해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먼저 혈액 내 적혈구로 들어가서 녹아 탄산이 되었다가 수소양이온과 탄산음이온으로 분리된다. 분리된 탄산음이온은 적혈구를 빠져나와 혈장에 용해되어 폐로 운반된다. 폐에서는 탄산음이온이 다시 적혈구로 들어가 이산화탄소가 된다. 이는 탄산이 녹아 있는 사이드와 콜라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이산화탄소는 폐에서 체외로 배출된다.

(마) 숨을 쉬지 못하면 체내로 산소가 유입되지 않고 체외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체내에서는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이를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받기 위한 호흡 흥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호흡을 통해 체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절 기능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일이 생명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해 준다.

- ② (나) : 헤모글로빈의 역할을 제시한 후 그와 관련 있는 용어를 소개하고 있다.
- ③ (다) : 포화반응과 해리반응의 결과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라) :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어 배출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마) : 숨을 쉬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들어 호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3 <보기>는 호흡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적혈구에 들어 있는 이산화탄소가 산소와 교환된다.
- ② ㉡의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 1분자에는 최대 산소 4분자가 결합되어 있다.
- ③ ㉢의 과정에서 적혈구로부터 산소가 분리되면 혈액의 pH가 높아지게 된다.
- ④ ㉣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적혈구로 들어가면 녹아서 탄산으로 변하게 된다.
- ⑤ ㉤에 들어 있는 혈장에는 탄산음이온이 용해되어 있다.

34 <보기>에 제시된 ㉠~㉤의 상황에서 ㉠이 일어나는 비율의 변화를 바르게 정리한 것은?

< 보 기 >

㉠. 물속으로 잠수해 들어가 한동안 숨을 참고 있을 때  
 ㉡. 실내에 있다가 추운 실외로 나가 찬바람을 쐬며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  
 ㉢. 숨이 가쁠 정도로 격한 운동을 했을 때

- |   |    |    |    |
|---|----|----|----|
|   | 그  | ㉠  | ㉡  |
| ① | 증가 | 증가 | 감소 |
| ② | 증가 | 감소 | 증가 |
| ③ | 감소 | 증가 | 증가 |
| ④ | 감소 | 감소 | 증가 |
| ⑤ | 감소 | 증가 | 감소 |

35 ㉠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 ① 흡입(吸入)                      ② 흡수(吸水)                      ③ 흡착(吸着)
- ④ 투입(投入)                      ⑤ 주입(注入)

32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문답 형식을 통해 화제를 제시하고 그 과학적 의미를 언급하고 있다.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IQ가 70이 채 안 되는 13살 소년 A는 혼자서 옷의 단추도 채우지 못하고 손톱도 깎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프랑스 어, 이탈리아 어, 스페인 어, 그리스 어, 터키 어 등 20여 개의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이들 외국어로 쓰인 글을 자국어인 영어로 손쉽게 번역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언어 능력이 다른 인지 능력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능력이라는 흠스키의 가설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두 가지 유형의 실어증 환자에 대해 살펴보면, 인간의 좌뇌에 언어를 담당하는 고유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인간의 언어 능력이 여타의 인지 능력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말해 준다.

실어증 환자 중에는 억양이나 발음이 정상적이어서 얼핏 듣기에는 매우 유창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휘를 잘못 사용하거나 종종 의미 없는 어휘들을 사용하는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가 있다. 이런 환자의 또 다른 특징은 문법적으로 비교적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지만, 특이하게도 ( ㉠ )는 것이다. 이 유형의 환자들은 1874년 칼 베르니케의 논문에서 처음 보고되었는데, 이들은 좌뇌의 뒷부분(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는 일상적인 간단한 명사를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물'이란 말 대신에 '마시는 것', 또 '코' 대신에 '냄새를 맡는 곳'이라고 하기도 한다.

실제로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에게 물고기 그림을 보여 주고 무엇인지 말하도록 실험을 했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A] "그것이 뭔지 알지만 말할 수가 없군요. 그건 물속에 있고, 그걸 잡는 건 재미있죠. 휴가에 말이죠. 그건 동물은 아니지만 동물에 가깝지요. 먹기도 좋고요. 그건 계지요, 아니 아니 게에 가깝기는 한데, 물피기인가. 맞아요 물고기! 바로 그거예요."

실어증 환자 중에는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단어를 의미에 맞게 사용하지만 문법적으로 틀리는 경우이다.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알려진 이런 유형의 실어증 환자는 더듬거리며 말을 한다. 또한 조사와 같은 기능적 어휘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간단한 핵심어만 사용하며, 적절한 단어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1861년 폴 브로카에 의해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된 이들 환자의 뇌를 부검한 결과 좌뇌의 앞부분(브로카 영역)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밝혀진 바로는 뇌의 어느 한쪽에 손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좌뇌와 우뇌 사이를 연결하는 신경세포에 의해 어느 정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그 신경세포가 손상된 경우에는 회복 가능성이 없어진다. 그리고 명사나 동사, 어휘 형성, 문장 생성 등 언어의 여러 측면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각각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문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손상된 환자는 문장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동사를 담당하는 부분이 손상된 환자는 동사를 ㉡말하지 못하게 된다.

36 위 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인지 능력이 부족한 아동도 유창한 언어 능력을 지닐 수 있다.
- ② 실어증 환자를 통해 인간의 좌뇌가 언어 능력을 결정함을 알 수 있다.

- ③ 실어증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 ④ 인간의 뇌에서 어휘 형성과 문장 생성을 담당하는 부위는 각각 다르다.
- ⑤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신경 세포가 손상된 실어증 환자는 회복 가능성이 없다.

37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다음 그림에 등장하는 실어증 환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더듬거리며 말을 하는 것을 보니 브로카 실어증 환자로군.
- ②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을 쓰는 것을 보니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로군.
- ③ 적절한 단어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니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로군.
- ④ 문맥에 맞지도 않는 어휘를 쓰는 것을 보니 좌뇌의 앞부분이 손상된 환자로군.
- ⑤ 조사와 같은 기능적 어휘들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보니 좌뇌의 뒷부분이 손상된 환자로군.

38 [A]와 관련지어 볼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순이 정확하지 않다
- ② 간단한 핵심 단어만 사용한다
- ③ 명사를 잘 기억해 내지 못한다
- ④ 문장에서 일부 단어를 빠뜨린다
- ⑤ 용언의 어미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39 <보기>를 참조할 때, ㉡과 동일한 방법으로 형성된 단어는?

— < 보 기 > —

○ 파생어의 형성 방법

어근 + 접미사 [예] ㉡말하다 : 말(어근) + -하다(접미사)

접두사 + 어근 [예] 치숫다 : 치-(접두사) + 숫(어근)

- ① 꽃답다                      ② 힘들다                      ③ 헛돌다
- ④ 짓밟다                      ⑤ 검붉다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사가 유별히 재미있는 날은 밥 먹는 것도 곧잘 잊는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로서, 재득은 오늘 무려 이천팔백 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윤이 좀 박하기는 했지만, 빛은 분명히 물건이 썩 좋았다. 오전 중엔 한 봉에 백 원씩 팔다가, 너무나 잘 나가는 바람에 눈 딱 감고 값을 백오십 원으로 올려 받았다. 그런데 오십 원을 올려 받는 데도 물건은 올라탄 차마다 기막힌 아다리\*였다. 이런 날 밥 한 끼 굶는 것쯤은, 오히려 재득 쪽에서 황송해 할 지경인 것이다.

허청대는 다리를 바쁘게 옮겨 재득은 드디어 평택집 앞에 발을 세운다.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니 주인 김씨가 한 손을 훌쩍 들어 보인다. 점잖은 김씨가 손을 드는 것을 보니 뭔가 그에게 일이 있는 모양이다. 재득은 곧 밥상들을 돌아 김씨 바로 옆에 무너지듯이 털썩 앉는다.

“뵙니까?”

④ “왜 그래, 안색이?”

“점심을 굶었더니 사지에서 썩 맥살이 빠지는군요.”

“사람 참……! 밥단은 제때에 찾아 먹어야지.”

말을 마친 주인 김씨가 곧 풀 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준다.

“두 시쯤 왔네. 차부\*로 나가 봤더니 오늘은 밖으로 돌아오지 않네.”

방을 자주 옮기는 탓으로, 재득은 편지를 띄울 때면 늘 평택집 주소를 이용한다. 밥을 단골로 먹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훨씬 자기 소개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편지는 예측한 대로 시골집에서 올라온 것이다. 연필로 씌어진 발신인을 보니 ①이번에도 역시 여편네 이름이다. 봉투를 뜯어 내용을 읽다가, 재득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가볍게 떨기 시작한다.

재득이 드디어 편지를 다 읽고, 편지지를 접어 안주머니에 꼭 찌른다. 묵묵히 재득을 바라보던 김씨가, 눈치가 이상했던지 조심스레 입을 연다.

“안 좋은 편진가?” / “그저 그래요.”

(중략)

제대 후 재득은 고향에 돌아가자 농사일을 때려 열고 은행 돈을 빌려 대대적으로 양계(養鷄)를 시작했다. 농사일은 평생을 해박야 제 털 뽑아 제 구멍에 박는 것이다. 뻔한 골짜기에 반발을 느낀 재득은, 여벌 모가지 걸어 놓고 ②한바탕 씩씩하게 발버둥을 쳐보기로 했던 것이다. 신문과 방송에는 성공담도 술하게 많다. 그러나 그것은 수백 명의 사람들 중 특출나게 아다리가 맞은 한두 사람의 이야기다. 닭은, 낱으라는 알은 안 낳고 재득에게 빛과 한술과 절망만을 낳아 주었다. 사료값은 오르고, 알값은 뚱값이고 닭은 닭대로 병에 걸려 하루에 수십 마리씩 바지개로 죽어 나간 것이다.

은행에 잡혔던 집과 논밭은 장마철에 김볼 때내려가듯 재득의 눈앞에서 손을 흔들고 때내려갔다. 그러나 빛은 은행뿐 아니라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마을 안 이웃들에게도 삼십여 만원이 ③빽빽하게 깔려 있었다. 집도 절도 없는 재득 부부는 이제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재득이 밤중에 고향에서 된 것은 바로 이런 무렵이다. 어차피 그는 마을에 있어 봤자 삼십만 원 빛 때문에 평생을 살아도 밝은 빛은 보기 힘들다. 부부가 다 튀면 죽일 놈 소리가 나올 것 같아, 재득은 아내를 볼 모로 날겨 둔 채 자기 혼자만 야간 도주를 한 것이다.

고향에서 된 지 석 달 만에 재득은 드디어 정류장에 터를 잡았다. 재득은 부지런히 벌었다. 형섭이나 낙표처럼 그는 입단이

걸지 못하다. 그러나 착실하고 꼼꼼한 성격이라 재득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④매달매달 꼬박꼬박 몇 푼의 돈을 고향으로 부칠 수 있었다. 아내 역시 고향에서 놀고 지낸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평범한 여자였다. 예뻐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말없고 부지런한 보통의 시골 여자였다. 빛 삼십만 원에 볼모로 잡힌 그녀는 남의 집 밭과 논에서 뼈가 녹아나게 샅일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안락의 노력은 삼십만 원의 이자 가리는 데도 뻑뻑하게 힘이 부쳤다. 고향에 있으나 밖으로 나오나 재득의 삼십만 원 빛은 여전히 한 푼도 줄지 않았다.

(중략)

그러나 오늘 도착한 아내의 편지는 모든 희망을 산산이 때려 부셨다. 고향에 부쳐진 오만 원은 수많은 빚쟁이들 사이에서 ‘손에 붙은 밥풀’이 되었다. 사정 한 마디 건네기도 전에 그 돈은 빚쟁이들 사이에서 ⑤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갖아 버린 것이다. 아내는 드디어 견디다 못해 자기도 고향을 뜨겠다고 했다. 이 말은 이미 아내로부터 오래 전에 나온 말이다. 이래도 저래도 고달프기는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서울로 올라가 당신 곁에서 식도 살이라도 하겠다는 이야기다. 행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득의 담장이 오면 즉시 행선지를 정해 뜨겠다고 얘기였다. 뜨게 되면 다시 연락을 주마 하고 아내는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사랑하는 당신의 아내’라는 말로 편지 글을 멋지게 맺은 것이다.

⑥ “아니 왜 그래?”

재득의 뚝배기에 음식이 반이나 남은 것을 보고, 김씨가 의아한 눈길로 재득의 얼굴을 뻔히 쳐다본다. 재득은 그러나 실쪽 웃고는 아무 말 없이 의자에서 일어선다.

“장부 주십시오.”

“점심두 굶었다며 왜 벌써 술갈을 놓나?”

“속이 좀 안 좋군요.”

“먹은 게 있어야 속이 안 좋지?”

“실은 낮에 찰떡을 몇 개 사먹었어요.”

사인을 하고 장부책을 돌려준 후 재득은 곧 가방을 집어 든다. 그러나 그가 몸을 돌리자 김씨가 문득 나직하게 입을 연다.

“재득이…….” / “예?”

“오늘 안 되겠나……?” / “뭘 말입니까?”

“낮에 물건을 좀 들여왔네. 돈이 안 되면 할 수 없구…….”

재득은 퍼뜩 정신이 든다. 벌써 열흘 치 밥값이 다 찬 것이다.

“감박 잊었군요. 모두 얼마죠?” / “삼천백 원일세.”

재득은 곧 주머니를 뒤적여 돈 이천 원을 꺼내 든다.

“모두 이거뿐입니다. 나머지 천백 원은 내일 다시 채워 드리죠.”

“고맙네. 백 원은 놔 두게…….” /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잘 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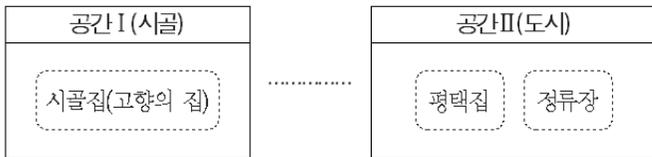
평택집을 나와 찬 공기를 마시자 재득은 그제야 정신이 약간 맑아진다. 밖은 이미 어둠이 깊어 삼점들의 불빛이 휘황하다. 여인숙을 지나 담뱃가게 앞에 다다르자 재득은 오십 원을 주고 남대문 한 갑을 받아 든다. 평택집에 밥값 이천 원을 물었더니 재득의 주머니는 다시 아침처럼 빈털터리다. 문득 재득의 침침한 눈앞에 주인집 여편네의 과하게 독 오른 얼굴이 떠오른다. 저녁에 주마고 약속을 했는데 재득에게 오늘도 역시 빈손밖에는 들고 갈 것이 없다.

- 홍성원, 「흔들리는 땅」 -

\* 아다리 : ‘단수(單手)’의 일본어. 여기서는 ‘딱 들어맞음’의 뜻.

\* 차부(車部) : 자동차의 시발점이나 종착점에 마련된 차의 집합소.

40. 위 글에 나타난 두 공간의 의미를 이해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간Ⅰ에서 진 '빛'은 공간Ⅱ에서 '채득'의 삶을 읽어대는 이유가 된다.
- ② 공간Ⅰ의 '시골집'과 공간Ⅱ의 '평택집'은 모두 '채득'이 인간적인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③ 공간Ⅱ에서의 생활이 공간Ⅰ에 비해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채득'에게 두 공간은 대항자이다.
- ④ '평택집'을 수신처로 하여 소식을 주고받는 편지는 공간Ⅰ과 공간Ⅱ의 가족 소식을 이어주는 수단이 된다.
- ⑤ '채득'에게 공간Ⅰ의 '시골집'은 과거의 삶의 터전이고, 공간Ⅱ의 '정류장'은 현재의 생계 유지를 위한 일터이다.

41. 위 소설을 읽은 어떤 독자가 다음의 시를 떠올렸다고 할 때, 소설 속 상황과 시의 상황을 연관 지은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소설 속 상황	감태준, '철새'
양계업마저도 실패한 뒤 빚만 늘어나고 생활이 더욱 암담해짐.	바람에 몇 번 뒤집힌 새는 / 바람 밑에서 놀고 / 겨울이 오고 / 겨울 뒤에서 더 큰 겨울이 오고 있었다
중꺾힌 삶을 벗어나기 위해 고향을 뜨고자 함.	"한번..." / 우리 사는 바닷가 등지를 돌아보며 / 아버지가 말했다 / "고향을 바꿔 보자."
무거운 마음으로 야간 도주해서 떠나감.	내가 아직 모르는 길 앞에서는 / 달려갈 수도 / 움직일 수도 없는 때, // 아버지는 바람에 묻혀 / 날로 조그맣게 멀어져 가고, 멀어져 가는 아버지를 따라 / 우리는 온몸에 날개를 달고 / 날개 끝에 무거운 이별을 달고 /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일터를 잡은 다음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함.	환한 달빛 속 / 첫눈이 와서 하얗게 누워 있는 들판을 가로질러 / 내 마음의 한가운데 / 아직 누구도 날아가지 않은 하늘을 가로질러 / 우리는 어느새 / <b>떡들</b> 속을 날고 있었다
고향을 떠나왔지만 기대했던 바와 달라 뜻을 이루지 못함.	"조심해라, 애야." / 앞에 가던 아버지가 먼저 발을 헛딛었다. / 발 <b>헛딛은</b> 자리, / 서울이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예측한 대로'와 연결 지어 볼 때, 편지가 이미 도착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맞아 떨어지고 있음이 강조된다.
- ② ㉡ : '대대적으로'와 연결 지어 볼 때,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행동이 부각된다.
- ③ ㉢ :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과 연결 지어 볼 때,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인연들을 접할 수도 없는 딱한 처지가 강조된다.
- ④ ㉣ : '착실하고 꼼꼼한'과 연결 지어 볼 때, 성실한 성격의 인물이 차곡차곡 재산을 불려가고 있음이 암시된다.
- ⑤ ㉤ : '손에 붙은 밥풀'과 연결 지어 볼 때, 인물(아내)이 일을 의외로 손쉽게 처리했음이 강조된다.

43. ㉠와 ㉡의 발화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는 왜 화가 났는지 눈치를 보며 던지는 질문이다.
- ② ㉠는 돈 벌기 위해 점심까지 굶고 다니는 상대의 행동을 질책하는 질문이다.
- ③ ㉡는 밀린 밥값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담긴 질문이다.
- ④ ㉡는 편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밥을 먹다 마는지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이다.
- ⑤ ㉠와 ㉡는 딱한 처지에 있음에도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는 상대를 측은히 여기며 던지는 질문이다.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씨 : (한숨) 그래서 그 날 밤 그렇게 뒤울타리를 뛰어넘어 나가 버리더니 그런 지가 열여덟 해가 되었다! 열여덟 해!

영오 : 그래서 시방도 외삼촌은 상해라는 데 있수?

최씨 : 모르지. 처음 갔을 때는 가끔 편지도 하고 하더니, 편지뿐 이드나! 육장 눈을 팔아서 그 뒤를 대고, (사이) 그런 전장(田莊)\*이야 다 게가 객지에서 요긴하게 쓰느라고 팔아 없앤 것이 니가 원통할 것은 없지단, 글세 그러니까 그게 어느 해냐? 경오년이지. 경오년 이쪽으로 팔 년째 나는 통히 소식조차 없구나! 그러니 답답할 게 아니냐? 죽었는지 살아 있거나 한지.

영오 : 편지해 보면 되지?

최씨 : 편지를 하면 도루 오고 도루 오고 하는 걸, (사이) 그렇게 눈발이 있든 것을 요모로 조모로 다 팔아 없애고 눈 이래야 겨우 박토 한 섬치기 남은 것예다가 세 식구가 목을 매어달고 울면불면 이날 이때까지 또 살어를 왔구나. (사이) 그래도 인제는 네 상인이 형이 그만꿈이나 장성을 했고, 시방은 고향을 한다고 고생은 해도 인제 내년 후년 이면 졸업을 한다니까 졸업을 하고 나오는 날이면 저 고생한 보람이 있어 또 제 에미가 초년의 생과부로 고생한 바람 있어 편안히 잘살게 되겠지. 내야 그 덕을 볼 날까지 살아 있을는지 모른다마는 혹시 모진 독술이 죽지 않고 몇 해 더 살아 있느라하면 제 덕으로 두 다리를 짝- 뺀고 다만 몇 날이라도 편히 살다가 죽을 테지. 나는 시방 믿느니 그것뿐이다.

【중략 부분 줄거리】 할아버지 제형(제사)날을 맞아 산소에 다녀온 상인이 집으로 돌아온다. 영오는 외할머니께 외할아버지가 동학 혁명에 가담했다가 관군에게 잡혀 죽고, 외삼촌인 영수는 일제에 맞서서 독립 운동을 하다가 일경에 쫓긴 끝에 상해로 망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상인에게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한다. 상인은 최씨와 영오에게 프롬테우스가 인간을 위해 불을 훔친 후 형벌을 받는 이야기를 해 준다.

배경은 멀리 연산의 산봉우리들. 무대에는 그들 연산 중에 제일 높은 봉을 보이는 바위 하나. 무대가 밝아지면 한쪽 눈이 상하고, 한편 귀가 떨어진 프로메테우스가 굵은 쇠사슬로 팔과 다리를 바위에 묶여 앉아 있다.

프로메테우스 : (눈을 치뜨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의(義)를 행한 보과(報果)품\*! 의를 이룬 보과품은 영겁의 고초! 죽지 아니하고 영겁토록 받는 고초! 사나운 독수리가 살을 쪼아 먹고 까막가치는 눈을 파먹고 귀를 떼어먹고 그러고도 끊이지 아니하는 극형!

㉠

프로메테우스 : 그래도 나는 의를 이루었노라. 뉘우치지 아니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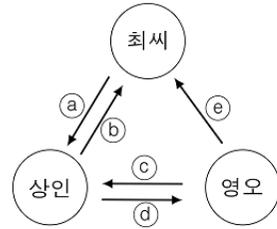
무대 급히 암전. 다시 밝아지면 도로 전경.

최씨 : 아이! (혀를 들뜰 찬다.) 불쌍하다.  
 상인 : 하하하하. 불쌍해요?  
 최씨 : 그런 불쌍하잖니! 언제까지고 그렇게 묶여 앉아 고생을 할 테니!  
 상인 : 그런데 얼마 전에 누가 가서 풀어 놓아 주었답니다. 할머니.  
 최씨 : 아이, 잘했다. 아무렴, 놓아 주어야지.  
 상인 : 하하하하. (일어서서 마당으로 내려선다.)  
 영오 : 형 어데 가우?  
 상인 : 나 누구 좀 만나고 오다.  
 영오 : 나도 같이 가?  
 상인 : 너는 못 오는 데다.  
 최씨 : 일찍 들어와서 저녁 먹어라.  
 상인 : 네. (채면\*개로 걸어간다.)  
 최씨 : (우두커니 바라보다가) 저것이 되태는 여승\* 제 애비야!  
 영오 : 외삼촌?  
 최씨 : 그래, 돌아서서 저렇게 걸어 나가는 걸 보면 그저 하릴 없이 제 애빈걸! 뒷대숙이가 볼록 나온 것이며 어깨통이 딱 벌어진 것이며 걸음걸이며. (한숨)  
 상인 : (한 번 둘러다 보고 채면 밖으로 퇴장)  
 최씨 : (방백) 어여 하루바삐 공부를 다 하고 와서 장가나 들고 자식이나 낳고 그래서 편안히 살아가거라. 믿느니 믿느니 그것뿐이다. (한숨)  
 영오 : 할머니, 할머니.  
 최씨 : 오-나.  
 영오 : 그런데 말이유. 우리 선생님도 그러시고 또 우리 반 동무아이도 그러는데 형이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사회주의 한다고 그러겠지?  
 최씨 : 무엇? 사우주? 그건 무슨 말이란?  
 영오 : 나도 모르겠어. 그냥, 이에 영오야! 느이 외갓집 상인이 형은 동경 가서 사회주의 한다지? 그래.  
 최씨 : 응, 그럼, 아다 돈 없이 고학한다는 말인가 부구나. 그렇다면야 어떻니? 그렇게 고학을 해서라도 공부만 착실하게 해서 장하게 되어 가지고 잘 살면 그만이지.

- 채단식, 「계향날」 -

- \* 전장 : 소유하는 논밭.
- \* 보과품 : 어떤 일의 보답으로 돌아오는 결과물.
- \* 채면 : 객석에서 보이지 않도록 얇은 판막이나 휘장 등으로 가린 곳.
- \* 여승 : '영락없이'의 뜻.
- \* 사회주의 : 일제 강점기의 일부 지식인들에게 사회주의는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수용되기도 했음.

44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집안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② ㉡ : 기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 ③ ㉢ : 친근하게 잘 따르고 있다.
- ④ ㉣ : 자신이 하는 일을 알리지 않으려 한다.
- ⑤ ㉤ : 상인에 대한 일을 알려 준다.

45 위 글에서 <보기>의 ㉡, ㉣와 대응하는 것을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묶은 것은? [1점]

< 보 기 >

이 작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를 주목해야 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 신이 감추어 둔 ㉣불을 훔쳐 인간에게 전해 줌으로써 문명을 일깨워 주지만, 그 일로 인해 제우스 신의 노여움을 사서 날마다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고 받으면 간이 되살아나는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작품의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① 영수, 망명      ② 영수, 공부      ③ 상인, 사회주의
- ④ 상인, 고학      ⑤ 최씨, 사회주의

46 [A]를 통해 알 수 있는 작중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씨의 며느리는 남편과 생이별을 한 상태이다.
- ② 최씨의 아들 영수는 현재 소식이 끊긴 상태이다.
- ③ 영수의 상해 망명 이후 최씨의 가세가 기울었다.
- ④ 최씨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최씨는 자기 신세와 관련해 조상을 원망하고 있다.

47 위 글을 공연할 때 ㉠ 부분에서 연출할 직한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름다운 무지개가 하늘에 떠 있다. 구름을 뚫고 하늘에서 상서로운 햇살이 비친다.
- ② 아침 해가 밝게 떠오른다. 돌 흘러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리다가 점차 조용해진다.
- ③ 붉은 조명이 여기저기 비친다. 황량하게 부는 바람 소리 이어진다. 처량한 음악이 흐른다.
- ④ 천둥 소리 으르렁거리고 번개 친다. 폭우가 내린다. 폭우가 그치고 강풍이 분다. 강풍이 그치고 눈이 내린다.
- ⑤ 주변의 조명이 밝아지면서 새 소리 들린다. 이어서 여러 가지 꽃잎이 날리면서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들린다.

【48-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동조(同調)'라고 한다. OX 퀴즈에서 답을 잘 모를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쪽을 따르는 것도 일종의 동조이다.

심리학에서는 동조가 일어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사람들은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하면 적어도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낯선 지역을 여행하던 중에 식사를 할 때 여행객들은 대개 손님들로 북적거리는 식당을 찾게 마련이다. 식당이 북적거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식당의 음식이 맛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둘째는, 어떤 집단이 그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질서나 규범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집단의 압력 때문에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개인이 그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집단에서 배척당하기 쉽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사람들은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동조를 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신이 믿지 않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동조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위의 두 가지 이유가 함께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선거에서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대개 활발하게 거리 유세를 하며 좀 더 많은 지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후보를 선택하게 된다. 곧 지지자들의 열렬한 태도가 다른 사람들도 그 후보를 지지하도록 이끄는 정보로 작용한 것이다. 이때 지지자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동조는 개인의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수록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고 그 결속력이 강할 때,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때도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집단 구성원들의 단장일치 여부도 동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만약 이때 단 한 명이라도 이탈자가 생기면 동조의 정도는 급격히 약화된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건너려고 할 때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별 생각 없이 따라 하는 것처럼, 동조 현상은 부정적인 경우에도 일어난다. 그러나 정류장에서 차례로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처럼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동조는 개인으로 하여금 정보 부족 상태에서 좀 더 나은 판단이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가 하면, 사회적으로는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봄비는 가게를 찾고, 같은 농담을 즐기며, 유행하는 옷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행동 특성이나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동조는 적절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48. 위 글을 통해 답을 구할 수 있는 물음이 아닌 것은?

- ① 동조의 강도는 어떤 경우에 달라지는가?
- ② 동조 현상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 ③ 사람들의 동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④ 항상 타인의 생각에 동의해야만 동조가 일어나는 것일까?
- ⑤ 동조 현상은 생활 속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가?

49. 위 글에 언급된 '동조'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한 것은?

- 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합리적 결과에 승복하여 따르는 것
- ② 포용적인 마음가짐으로 타인의 제안을 수용하여 따르는 것
- ③ 타인의 고충을 해결해 줄으로써 그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
- ④ 부정적 사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집단의 힘을 이용하는 것
- ⑤ 정보 부족이나 집단 압력으로 인해 타인의 행동을 따르는 것

50. 위 글을 읽고 <보기>의 상황을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옛날에 허영심이 많고 옷 욕심이 유별난 임금이 있었다. 하루는 특별한 옷을 만들 수 있다며 장인(匠人) 행세를 하는 사기꾼들이 임금을 찾아와, 자기들이 만든 아름다운 옷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옷이라고 했다. 솔깃한 임금은 옷을 주문하였고, 며칠 후 사기꾼들은 벌거벗은 임금에게 자기들이 만들어 왔다는 옷을 입혀 주는 시늉을 하였다. 임금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말하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 두려웠던 임금은 옷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거리로 나섰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백성들은 벌거벗은 임금을 바라보면서도 이구동성으로 임금의 옷이 참 아름답다고 말했다. 이때 군중들 틈에 서 있던 한 소년은 큰 소리로 외쳤다.

“저것 봐요, 임금님이 벌거숭이예요.”

이어서 소년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순진한 이 아이가 임금님은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임금님은 벌거숭이’라는 웅성거림이 일었다.

- 「벌거벗은 임금님」 -

- ① ‘임금’이 옷을 자랑하려는 의도로 거리에 나선 것은 긍정적 측면에서의 동조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② ‘백성’들이 ‘소년’에 대해 동조의 입장을 보인 것은 순진한 ‘소년’의 말이라는 점에 신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 ③ ‘백성’들과 다른 행동을 취한 ‘소년’의 태도로 단장일치가 불가능해지자 동조의 강도가 약화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 ④ ‘임금’이 ‘사기꾼’들을 전문적인 옷 기술자로 여겨 보이지 않는 옷을 보이는 것처럼 처신한 것도 일종의 동조 행위로 볼 수 있다.
- ⑤ ‘임금’의 옷이 아름답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한 ‘백성’들의 심리에는 집단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깔려 있다.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